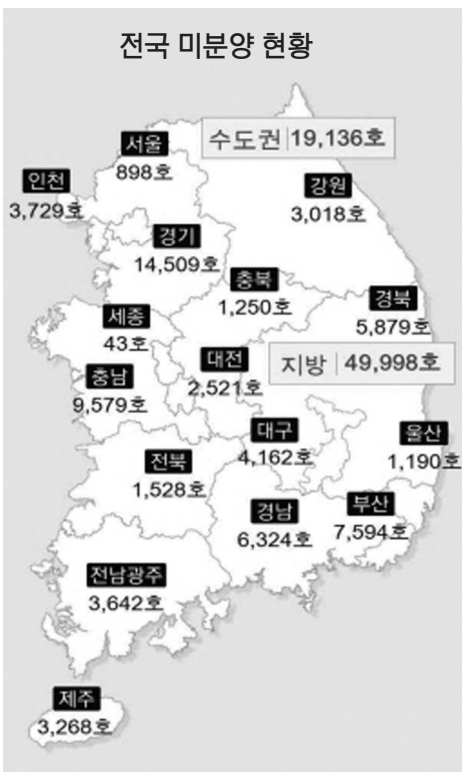


착공 늘고 미분양 줄었지만… 지역 주택시장 ‘반쪽 회복’



착공 159%↑·분양 248%↑ 공급 지표 개선
8월 누계 인허가 물량 7274호 그쳐 44.2%↓
매매·전월세 거래도 주춤… 회복세 제한적

전남광주 주택시장에서 신규 공급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가운데 주택 매매와 임대차 거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 반면, 인허가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8월 전남광주 지역의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인허가는 감소했고 매매·전월세 거래도 전월보다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3600호대로

감소했다.

주택 건설 실적 가운데 착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8월 전남광주 착공 물량은 3600호로 지난해 같은 달 1240호보다 190.3% 증가했다. 올해 1~8월 누계 착공 물량도 1만373호로 전년 동기 4009호 대비 158.7% 늘었다. 지방 전체 누계 착공 증가율 25.0%와 전국 증가율 1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분양 실적도 늘었다. 8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 기준 분양 물량은 638호로, 지난해 같은 달 분양 실적이 없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다. 1~8월 누계 분양 물량은 5213호로 전년 동기 1500호보다 247.5% 늘었다.

실제 입주가 가능한 준공 물량 역시 증가했다. 8월 준공 실적은 1460호로 전년 동월 246호보다 493.5% 늘었다. 다만 1~8월 누계 준공 물량은 8460호로 전년 동기 1만3659호 대비 38.1% 감소했다. 월간 실적과 누계 실적이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만큼 공급 추세를 판단할 때는 향후 준공 물량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주택 인허가는 감소했다. 8월 인허가 물량은 174호로 전년 동월 260호보다 33.1% 줄었다. 1~8월 누계 인허가 물량도 7274호로 전년 동기 1만3029호 대비 44.2% 감소했다. 착공과 분양이 늘어난 것과 달리 향후 주택 공급의 출발점인 인허가가 줄어든 만큼 중장기 공급 흐름

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주택 거래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났다. 8월 전남광주 주택 매매거래량은 2982건으로 전월 3724건보다 19.9%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 2809건과 비교하면 6.2% 증가했지만, 최근 5년 평균 8월 거래량보다는 17.7% 적었다.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장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거래 회복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월세 거래도 감소했다. 8월 전월세 거래량은 6655건으로 전월 6962건보다 4.4% 줄었다. 전년 동월 7654건과 비교하면 13.1% 감소했으며 최근 5년 평균 8월 거래량보다도 16.1% 적었다.

미분양 주택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8월 말 기준 전남광주 미분양 주택은 3642호로 전월 3716호보다 74호(2.0%) 줄었다. 2024년 말 4840호까지 늘었던 미분양

물량은 2025년 말 4119호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도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134호로 전월보다 1.3%, 지방은 4만9998호로 2.5% 증가해 전남광주와 대조를 보였다.

다만 미분양 감소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규 공급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실제 거래가 뒷받침되는지, 인허가 감소가 향후 공급 물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남광주 주택시장은 착공과 분양이 늘고 미분양이 감소하는 등 공급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매매·전월세 거래 위축과 인허가 감소 등 불확실성도 공존하고 있다”며 “신규 공급이 실수로 이어지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을지가 향후 주택시장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청년미래적금 2차, 7일부터 가입 신청

최대 2255만원 수령…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가 개선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 기간에서 제외된다. 가입 자격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뤄지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심사에는 가장 최근 확정된 2025년 국제소득 데이터가 활용된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

유형에 따라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연 5%이고 금융회사별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 등 14개 금융회사와 우정사업본부가 상품을 취급한다.

매월 50만원씩 36개월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금리 연 8%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약 230만원을 더해 만기 수령액이 약 2138만원에 이른다. 우대형은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약 239만원을 합쳐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난 1차 모집 과정에서 나타난 자격 심사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보완했다. 신청자는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금융위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청자가 선택한 유형과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소명할 수 있다. 최종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통보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설시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설시 행정부시장(가운데)이 30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 전남광주통합특설시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개최식’에 참석해 주요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산업생산·건설수주 호조…내수 회복은 더더

호남데이터터청 ‘8월 산업활동동향’

광공업 생산 1.6% 증가…전기장비 30.1% ↑

건설 5507억원…대형소매점 판매 4.4% 감소

전남광주통합특설시의 산업활동이 제 조업 생산과 건설수주 증가에도 소비 부진과 지역별 격차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비 등 일부 업종의 생산이 늘고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화학제품 등 전통 제조업의 부진과 대형소매점 판매 감소가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의 회복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호남지방데이터터청이 발표한 ‘2026년 8월 전남광주통합특설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통합특설시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08.9(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6.1% 감소해 월별 생산 흐름에서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30.1% 증가하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기·가스업도 11.0% 늘었고 1차 금속은 8.0% 증가했다. 반면 금속가공은 13.5% 감소했고 화학제품과 자동차도 각각 7.8%, 1.9% 줄었다. 에너지 관련 설비와 전기장비 등이 생산 증가를 이끌었지만, 제조업의 주요 축인 석유화학과 자동차 등에서는 업황 회복이 더딘 모습

이다.

생산 증가가 출하 확대로 이어지는지 약 실적이라는 점에서 증가세만으로 건설경기 전반의 회복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착공과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지역 업체의 참여와 고용 확대 등으로 파급되는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1로 4.4% 하락했다. 대형마트 판매도 같은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 부문에서 나타난 증가세가 소비시장에서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가계가 체감하는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경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권 광공업 생산은 8.5% 증가했고 출하도 4.0% 늘었다. 전기장비 생산이 46.2% 증가하고 전자·통신은 14.2%, 자동차는 0.8% 늘면서 생산 증가를 뒷받쳤다.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는 2.2% 감소했고 건설수주액은 1228억원으로 4.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남권은 광공업 생산이 1.4% 감소하고 출하도 3.4% 줄어 광주와 대조를 보였다. 화학제품과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으며 대형소매점 판매도 9.2% 감소해 소비 위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반면 건설수주액은 4279억원으로 37.4% 증가했다. 특히 건축부문 수주가 크게 늘면서 통합특설시 전체 건설수주 증가를 견인했다.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다만 건설수주는 향후 공사에 대한 계약 실적이라는 점에서 증가세만으로 건설경기 전반의 회복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착공과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지역 업체의 참여와 고용 확대 등으로 파급되는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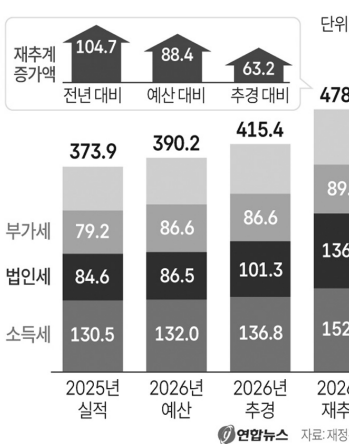
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1로 4.4% 하락했다. 대형마트 판매도 같은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 부문에서 나타난 증가세가 소비시장에서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가계가 체감하는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경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권 광공업 생산은 8.5% 증가했고 출하도 4.0% 늘었다. 전기장비 생산이 46.2% 증가하고 전자·통신은 14.2%, 자동차는 0.8% 늘면서 생산 증가를 뒷받쳤다.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는 2.2% 감소했고 건설수주액은 1228억원으로 4.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남권은 광공업 생산이 1.4% 감소하고 출하도 3.4% 줄어 광주와 대조를 보였다. 화학제품과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으며 대형소매점 판매도 9.2% 감소해 소비 위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반면 건설수주액은 4279억원으로 37.4% 증가했다. 특히 건축부문 수주가 크게 늘면서 통합특설시 전체 건설수주 증가를 견인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2026년 국제수입 재추계 결과



반도체 호황에 세수 역대최대

479조…미래기금 56조 추가

반도체 호황에 올해 국제 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3월 추경편성 때 추계한 것보다 총국세는 63조원 남짓 늘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원에 달해 전체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정부 조만히 세제실장 주재로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하고 2026년 국제수입 전망을 논의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총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373조9000억원) 대비 104조 7000억원 증가한 478조6000억원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선다. 본예산 대비 88조4000억원 커진 수준이다.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았다. 올해보다 오차율이 높았던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이다.

정부는 법인세 추계를 위한 인공지는 예측모형까지 도입했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로 모형을 넘어야 하는 기업 영업이익의 입력변수 자체가 급변한 것이 오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세수는 136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1조8000억원 늘어났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 추경 전망 101조3000억원보다는 35조원 많은 수준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의 시장 전망치를 보면 작년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원으로 늘었다. 현재 시장 전망은 638조원으로 추경 때의 2배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가 152조4000억원 견줄 것으로 재추계했다. 본예산(132조원)과 올해 추경(136조8000억원) 때보다 역시 모두 늘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본예산·추경 때보다 각각 2조4000억원씩 늘어난 89조원이 견줄 것으로 다시 계산했다. 연합뉴스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 청와대 앞 쫓겨대회

“공사 졸속통합 중단” 촉구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하는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원이 청와대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였다.

여수광양과 부산, 인천, 울산 항만공사 노조원 400여 명은 최근 공동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명분 없는 졸속 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궐기대회는 박신호 부산항만공사노조 위원장의 대회사, 이영호 인천항만공사노조위원장, 강덕호 울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위원장의 투쟁사, 4개 항만공사노조위원장의 투쟁결의문 낭독, 및 투쟁결의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박신호 부산항만공사노조위원장은 대회사 통해 “정부는 중박 기능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통폐합한다고 했으나 항만공사는 기능이 같은 것이 아니고 업

종이 같은 것”이라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위원장은 “정부는 지역에 자사가 남으니 관철고 특정 기능을 조정하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투자를 결정할 권한, 예산과 인력을 현장에 맞게 운영할 권한, 지역사회와 항만의 미래를 함께 결정할 권한을 통합 본사로 가져간다면 지역 자사에 무엇이 남느냐”며 성토했다.

그는 또 “왜 법인이 통합을 해야 하는가”며 “부산 환적, 인천 수도권 물류, 울산 에너지, 여수광양 산업물류 등으로 대한민국 항만이 함께 키워야 할 경쟁력”이라며 꼬집었다.

4개 항만공사노조는 검증 없는 일방적 강제통합 즉각 철회, 통합의 근거와 추진과정 전면 공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배제한 일방적 결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